

한국어의 접두 파생법에 대한 연구

니누이

(Hnin Nu Yee)*

국문초록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조어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조어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면 한국어의 어휘 조어법을 쉽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에는 접두사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할 때 접두사는 빼 수 없는 부분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접두사에 의한 조어법과 한국어 접두사 구성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과 함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어와 미얀마어를 연구하는 언어 학습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휘 수업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조어법,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 접두사, 접미사, 명사 파생, 동사 파생, 형용사 파생, 부사 파생

1. 서론

* Tutor, Korean Department, Yango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본 연구에는 명사와 결합하는 접두사, 동사와 결합하는 접두사, 형용사와 결합하는 접두사로 나누어서 그 접두사들과 결합하는 단어 형성법을 연구한다. 한국어의 조어법에는 접두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어의 조어법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접두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접두사에 의하여 여러가지의 단어가 형성되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연구 목적

한국어는 교착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접두사의 역할이 매우 큰 자리를 차지한다. 한국어에는 접두사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접두사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접두사 구성을 형태적인 측면에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접두 파생법의 특성을 연구하는 데 주목적을 둔다. 이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앞으로 할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며 한국어 교육이나 미얀마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의 자료로는 국어 사전에 나온 접두사를 수집한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 접두사에 대하여 명사 파생 접두사, 동사 파생 접두사, 형용사 파생 접두사 등의 품사별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본 논문은 한국어 접두사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한국어 접두사에 의한 단어 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사적으로는 아니고 형태적인 특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4. 결과

한국어는 교착어(agglutinative language)이기 때문에 한 단어 속에 문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접사계열은 접두사, 접요사, 접미사의 세 가지가 있다. 어근 앞에 붙이는 접사를 접두사, 어근

사이에 붙이는 접사를 접요사, 어근 뒤에 붙이는 접사를 접미사라고 한다.
한국어에서 접요사는 음운론적 삽입이라 하여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한국어의 접사로는 파생 접두사와 파생 접미사만을 인정한다.

한국어의 접두사에는 명사 앞에 붙이는 명사 파생 접두사, 동사 앞에 붙이는 동사 파생 접두사, 형용사 앞에 붙이는 형용사 파생 접두사, 부사 앞에 붙이는 부사 파생 접두사가 있다. 그런데 부사 파생 접두사는 수가 너무 적으며 정해져 있는 형태소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

한국어의 파생 접두사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뜻을 더해주는 기능만 하고 문법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접두사를 붙이는 여기는 일반적으로 독립된 단어에 해당한다. 한국어의 접두사는 접미사에 비하여 수가 많은 편은 아니며, 결합하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어서 그 역할도 접미사보다 단순한 편이다.

접두사는 실질형태소이어서 어근과 결합하면 뜻이 변하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근 앞에 위치한 어떤 형태소는 접두사가 맞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접두사와 관형사는 모두 후행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² 접두사와 관형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분포의 제약성을 들 수 있다. 관형사는 분포상의 제약이 적은데 접두사는 독립성이 약하고 항상 일정한 명사들과만 결합한다. 관형사 '한¹'과 접두사 '한²'을 분포의 제약성을 포함하여 구별하고자 한다.

예: 1) 가: 한 여자, 생선 한 마리, 밥 한 그릇, 노래 한 곡, 한 마을
나: 한길, 한걱정, 한낮, 한겨울, 한마을, 한집안

(1,가)은 관형사 '한¹'을 뜻한다. (1,나)의 '한²'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한길, 한걱정'의 '한'은 '큰'의 뜻, '한낮, 한겨울'의 '한'은 '정확한'의 뜻, '한마을, 한집안'의 '한'은 '같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그리고 예문 (1,나)에서 '한²'이 (1,가)의 '한¹'보다 분포의 제약을 훨씬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분포상의 제약이 적은 (1,가)의 '한¹'은 관형사이고 분포상의 제약이 큰 (1,나)의 '한²'은 접두사라고 구분할 수 있다.

² 양영진(2010), '한자복합어 의존 형태소 연구', 54 쪽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접두사와 관형사는 결합하는 어근와의 사이에 다른 단어를 삽입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구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2) 가: 한 예쁜 여자, 한 조용한 마을, 한 네모 문
나: * 한작은길, * 한많은걱정, * 한조용한마을

(2,가)에서 관형사와 명사 사이에 제 3 의 단어가 삽입될 수 있지만 (2,나)에서는 접두사와 명사 사이에 새로운 단어가 들어갈 수 없다. 접두사는 뒤에 오는 어근과 결합하여 접두 파생어를 만듦으로써 이들 사이에 휴지가 불가능하며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 없다.

용언을 꾸미는 부사와 용언에 붙는 접두사는 모두 용언 앞에 결합하기 때문에 구별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용언 앞에 결합하는 형태소가 부사인지, 접두사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접두사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문장 안에서 부사의 자리는 어느 정도 자유롭다. 그리고 문장 안에서 부사를 생략해도 그 부사는 문장 전체의 의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접두사와 부사의 차이점을 다음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예: 3-1) 가: 철수는 보따리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나: 철수는 보따리를 툭 바닥에 떨어뜨렸다.
다: 철수는 보따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예: 3-2) 가: 뱀이 나뭇가지를 휘감았다.
나: * 뱀이 휘 나뭇가지를 감았다.
다: 뱀이 나뭇가지를 휘감았다.

예문 (3-1,나)에서 부사 '툭'은 문장에서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지만 (3-2, 나)에서 접두사 '휘-'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3-1, 다)에서는 부사 '툭'이 생략되어도 (3-1,가)와 그 의미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렇지만 (3-2, 다)에서는 접두사 '휘-'가 생략하게 되면 (3-2, 가)와는 의미 차이가 난다. 접두사와

어근과의 사이에는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없다는 형태론적인 차이로 접두사와 부사를 구별할 수 있다.

4.1 한국어 명사 파생 접두사에 의한 단어 형성

한국어 접두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과 결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명사와 결합하여 파생명사를 만들어내는 접두사가 가장 많다. 접두사가 명사와 결합한 후에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도 없다. 명사 앞에 놓은 접두사는 뒤에 결합하는 명사를 한정하는 의미적 형성이 관형사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관형사성 접두사라 부르기도 한다.

한국어 명사 파생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 4) 강- : 강추위, 강다짐, 강술

늦- : 늦가을, 늦바람, 늦김치

들- : 들소, 들장미, 들배

만- : 만누이, 만딸, 만자식

예문 (4)에는 '강-'은 '심한'의 뜻을 가지는 것으로 '강추위, 강기침'에 나타나고 '강술'과 같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의 의미에도 쓰인다. '늦-'은 '늦은'을 의미하는 것으로 '늦가을, 늦바람, 늦김치' 등에서 나타난다. '들-'은 동식물 이름 앞에 붙어 '야생의' 또는 '품질이 낮은'의 뜻인데 '들소, 들장미, 들배' 등에서 발견된다. '만누이'의 '만-'은 '태어나는 차례의 첫번'을 뜻하는 접두사인데 '만누이, 만딸, 만자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어의 명사 파생 접두사는 다음과 같다.

'가시-, 강-, 개-, 곁-, 겹-, 군-, 날-, 늦-, 덧-, 돌-, 들-, 들-, 떡-, 막-, 만-, 맛-, 맨-, 맹-, 메-, 물-, 민-, 밭-, 벌-, 불-, 빗-, 살-, 선-, 설-, 소-, 쇠-, 수-, 솟-, 실-, 알-, 암-, 얼-, 엇-, 온-, 울-, 외-, 웃-, 작은-, 잔-, 줄-, 짓-, 짝-, 쪽-, 차-, 찰-, 참-, 처-, 치-, 큰-, 통-, 풋-, 한-, 핫-,

해-, 헛-, 흘-, 흘-, 가(假)-, 갈(褐)-, 강(強)-, 경(經)-, 고(古)-, 고(高)-, 공(空)-, 과(過)-, 구(舊)-, 귀(貴)-, 극(極)-, 급(急)-, 난(難)-, 남(男)-, 냉(冷)-, 노(老)-, 농(濃)-, 다(多)-, 단(單)-, 담(淡)-, 대(大)-, 대(對)-, 도(都)-, 독(獨)-, 맹(猛)-, 명(名)-, 몰(沒)-, 무(無)-, 미(未)-, 반(反)-, 반(半)-, 백(白)-, 복(複)-, 본(本)-, 부(不)-, 부(副)-, 불(不)-, 비(非)-, 생(生)-, 서(庶)-, 선(先)-, 소(小)-, 수(數)-, 시(媿)-, 신(新)-, 양(洋)-, 양(養)-, 여(女)-, 연(連)-, 연(軟)-, 연(延)-, 왕(王)-, 외(外)-, 유(有)-, 재(在)-, 재(再)-, 저(低)-, 중(重)-, 진(津)-, 진(眞)-, 초(初)-, 초(超)-, 최(最)-, 친(親)-, 탈(脫)-, 토(土)-, 피(被)-, 항(抗)-, 호(好)-, 호(胡)'

4.2 한국어 동사 파생 접두사에 의한 단어 형성

동사 파생 접두사는 동사에 결합하여 파생 동사를 만드는 접두사이다. 한국어의 동사 파생 접두사는 명사 파생 접두사에 비해 적은 편이다. 동사 앞에 놓은 접두사는 뒤에 결합하는 동사를 한정하는 의미적 형성이 부사와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부사성 접두사라 부르기도 한다. 한국어 동사 파생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 5) 곱- : 곱씹다, 곱파다

들- : 들끓다, 들볶다, 들쭉시다

덧- : 덧나다, 덧내다, 덧붙다

짓- : 짓밟다, 짓누르다, 짓이기다

옛- : 옛듣다, 옛보다, 옛살피다

예문 (5)에 '곱-'은 '심한 정도, 잦은 횟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곱씹다, 곱파다'에서 발견된다. '들-'은 '몹시, 함부로'의 뜻을 가지며 '들끓다, 들볶다, 들쭉시다' 등에서 나타난다. '덧-'은 '거듭 또는 덧붙임'의 뜻인데 '덧나다, 덧내다, 덧붙다'로 쓰인다. '덧-'은 '덧니, 덧신, 덧저고리'에서와 같이 명사

앞에도 쓸 수 있다. '짓-'은 '함부로, 마구'의 뜻인데 '짓누르다, 짓이기다' 등에서 발견된다. '옛-'은 일부 동사 앞에 붙어 '몰래, 가만히'의 의미를 더해주는 접두사로 '옛듣다, 옛보다, 옛살피다' 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한국어 동사 파생 접두사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걸-, 검-, 겹-, 곱-, 내-, 내리-, 다-, 데-, 되-, 뒤-, 드-, 들-, 들이-, 막-, 맞-, 몰-, 빗-, 설-, 얼-, 엇-, 옛-, 짓-, 처-, 치-, 헛-, 흘-, 휘-'

4.3 한국어 형용사 파생 접두사에 의한 단어 형성

형용사 파생 접두사는 형용사에 결합하여 파생 형용사를 만드는 접두사이다. 파생형용사를 만드는 접두사는 동사 파생 접두사와 마찬가지로 명사 파생 접두사에 비해 적은 편이다. 형용사 파생 접두사는 뒤에 오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의미적 특성이 부사의 성질과 비슷하여 부사성 접두사라 부르기도 한다.³ 형용사 파생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한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예: 6) 새- : 새빨강다, 새파랗다

시- : 시빨강다, 시퍼렇다

드- : 드넓다, 드높다, 드다르다, 드뭇다

검- : 검세다, 검쓰다, 검차다

예 (6)은 '새빨강다, 시퍼렇다'의 '새-' 와 '시-'는 주로 색채 형용사 앞에 붙어 '그 빛깔이 매우 산뜻하게 짙음'을 나타내고 '새파랗다, 새빨강다, 시퍼렇다, 시빨강다'로 쓰인다. '드-'는 '정도가 한층 높음'의 뜻인데 '드넓다, 드높다, 드다르다, 드뭇다' 등에서 발견된다. '검-'은 '몹시 지나치게'라는 뜻인데 '검세다, 검쓰다, 검차다'에서 나타난다.

³ 허혜정(2010), '한국어와 말레이어 접두사의 대조 연구', 17 쪽을 참조하였다.

한국어 형용사 파생 접두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 검-, 다-, 데-, 드-, 새-, 셋-, 시-, 싯-, 엇-, 휘-’

5. 한국어 접두 파생법의 특성

접두사를 붙이는 어기는 일반적으로 독립된 단어에 해당한다. 한국어 접두사는 어근에 붙이고 새로운 단어를 형성할 때 파생된 단어의 품사가 명사형으로만 있다.

예: 7-1) 접두사 + 명사 + 명사 = 명사
차- + 시루 + 떡 = 차시루떡

7-2) 접두사 + 동사 = 동사
들어- + 밀다 = 들어밀다

7-3) : 접두사 + 형용사 = 형용사
새- + 빨강다 = 새빨강다

예(7-1)에서는 명사인 ‘시루와 떡’ 두 개에 앞에서 접두사 ‘차-’를 결합함으로써 ‘참쌀가루로 찐 시루떡, 즉 차시루떡’이라는 명사 파생어만 만들어낸다. (7-2)에서는 이음절 동사 파생 접두사 ‘들어-’가 ‘밀다’와 결합하여 ‘들어밀다’라는 동사 파생어를 만들어낸다. (7-3)는 형용사 파생 접두사 ‘새-’가 ‘빨강다’와 결합할 때 품사의 범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 접두사는 의미를 더하는 기능만을 하고 있는 한정적 접사이다. 그러나 한국어 접두사는 한정적인 기능만을 취한다는 것만은 아니다. 예문 (12, 가)에서 제시된 것처럼 어기 ‘먹다’에 접두사 ‘맞-’이 결합된 접두 파생어이다.

예: 8) 가: 그 구두는 내 월급과 맞먹는다.

나: 그 구두는 내 월급과 먹는다.

'떡-'은 타동사인데 예문 (8,가)에서 보듯이 '맞-'이 결합되면서 불완전자동사로 바꾸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접두사가 여기에 붙어서 어기의 품사를 바꾸지 못해도 문법적 특성을 바꾸는 지배적 접사의 기능을 보인다는 점은 한국어 접두사에만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는 부사 어근과 결합하는 파생 접두사가 있다는 것도 한국어의 특성이다. 부사 파생 접두사는 정해져 있는 어근과만 결합할 수 있다. 부사 파생 접두사가 어근에 결합한 후 부사 파생어가 된다는 것을 '맞-바로, 외-따로, 줄-곧, 무-조건' 등에서 볼 수 있다.

6. 결론

한국어의 접사는 여기에 결합하며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기능을 하는 파생접사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굴절접사가 있는데 한국어의 접두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어서 파생접사에 속한다. 한국어의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 범주를 바꾸지 않지만 어근의 의미를 더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형태소에는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가 있는데 한국어의 접두사는 단독으로 단어의 성분을 취하지 못해서 모두 의존형태소에 해당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접두사에 의한 조어법과 한국어 접두사 구성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과 함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 한다. 이러한 대조 연구를 통해 한국어의 접두사에 대한 이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가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국어의 접두사는 조어적 생산성이 뛰어나므로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최현정 (2011), <파생어 형성을 이용한 효과적인 어휘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추이수꺼 (2015), <한국어 교재에 기술된 한자어 접두사 교육 연구,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교재를 중심으로>, 광주여자대학교 한국어 문학과, 석사학위논문.

한봉원 (2012), <한국어 파생어 교육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방안 연구>, 세명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혜정(2010), <한국어와 말레이어 접두사의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반뜨 (2016),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 한자어 파생 접두사 교육 연구, 베트남 내 대학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전북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nkhtaivan Odontuya (2012), <현대 한국어와 몽골어 명사 파생 접미사 대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dictionary]

국어사전 (1999), The National Academy of the Korean Language

감사의 말씀

제일 먼저 한국어를 제외하지 않으며 정성껏 가르쳐 주시고 고마우신 미얀마 선생님들과 한국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논문 작업을 이끌어 주신 양곤 외국어대학교 총장님 Kyi Shwin 박사님, 부총장님 Mi Mi Aung 박사님, Yin Myo Thu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식뿐만 아니라 하나하나를 일일이 채워 주시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는 양곤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의 학과장님 Myint Myint Maw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 주시며 논문을 꼼꼼히 읽고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신 언어학과의 학과장님 Dr. Soe Soe Myint 과 Nwe Ni Tin 교수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The Study of Word Formation by Prefixes in Korean Language

Hnin Nu Yee⁴

Abstract

Word Formation is so important in learning Korean Language. If the Korean learners are taught word formation of Korean systematically, they can easily comprehend the morphology of Korean. We cannot neglect the importance of prefixes in studying the Korean language as there is much in numbers of prefixes in Korean language. This research paper deals with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prefixes in Korean by analysis of word formation by prefixes of Korean. By using the findings of this paper, the Korean learners can assimilate the word formation by prefixes and improve in the expansion of vocabulary.

⁴ Tutor, Korean Department, Yango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